

충현의 만나

역대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도제목

1.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2.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목양을 위하여
3. 부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헌신과 능력 충만을 위하여
4. 제2회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도록
5. 교회학교와 찬양대와 교회의 모든 위원회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하여
6.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를 위하여
7. 세계 선교 사역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3년 10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10월호 집필을 위하여 이조웅·조동원·이종대·정광욱·
김수상·박정규 목사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역대기 서론

역사 문학에 속하는 역대기는 본문의 내용 자체로는 기록자가 누구인지 확정지을 수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볼 때 에스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정치적인 측면에서 백성과 왕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 주로 유다의 역사를 종교적인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역대상은 사무엘서와, 역대하는 열왕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역대기의 주제는 '여호와와 통치'이다. 역대기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생활 후 본국으로 돌아와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의 지도를 받으며 예루살렘을 재건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다.

기록 목적은 첫째, 사울에서 고레스에 이르는 시기의 제사장적인 예배의 역사를 서술하여 유다 중심의 종교적인 역사를 제공해주는 데 있으며 둘째,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오셨는가 하는 점을 역사를 통해서 입증해보이려는 데 있다.

역대기의 내용을 대분해보면 ①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대상 1장~9장) ② 다윗의 통치(대상 10장~29장) ③ 솔로몬의 통치(대하 1장~9장) ④ 유다의 열왕들(대하 10장~36장)이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대상 24:2)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 자손의 반차대로 24반열로 나누어 순번을 정하여 놓으므로 봉사의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제사장들의 순종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바른 헌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소에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끄고 켤 때 향을 사르는 직무를 그들이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등불을 켤 때에는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여 향을 살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다른 불을 삼아 바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손을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론의 제사장의 반열에서 제외되고 결국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범죄함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말씀이 구약에는 34번, 신약에는 59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을 보면 “순종은 제시보다 낫고”(삼상 15:22),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신 28:2)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더라도 순종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순종치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오직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까?

▶ 기도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바파와 제금을 잡아 ……』(대상 25:1)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신령한 노래로 드리는 찬양을 원하십니다(1절). '신령한 노래를 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하다, 장래 일을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육신을 위한 노래가 아 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과거 와 현재와 미래에 계속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말합니다. 둘째 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원하십니다(3절). 여기서 감사 찬 송이란 감사 속에 자복의 마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송축함 으로 드리는 찬양을 원하십니다(3절). 다른 말로 하면 '칭찬하다, 할렐 루야' 의 뜻으로 승리, 용맹, 공훈을 찬양하며 세상에 선포함을 의미합니 다.

이러한 찬양의 삶을 통하여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대 하 20:22). 그리고 바울 사도도 찬양을 통하여 간수를 회개케 하는 결과 를 얻었습니다(행 16:25-30).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찬양은 또 다른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지음받은 성도는 저주와 궤환 의 말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존귀를 선포하는 입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칭송하며 앞으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또한 성도에게는 신앙의 간증이 되며 복음 전파가 되 게 합니다. 오늘도 찬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 기도 / 일생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소서. 김창인 원로목 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을 덧입혀 주소서.

『하나님이 오벰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대상 26:5)

본문은 성전을 지키는 자들의 직무에 대하여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무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거룩하게 유지하며, 하나님의 존귀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 문지기에 오벰에돔의 자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께서 오벰에돔에게 복을 주신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오벰에돔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올 때 법궤를 싣고 오던 소가 뛰놀므로 옷사가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옷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은 두려워서 다윗성으로 운반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세 달 동안 오벰에돔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때에 오벰에돔은 정성껏 모셔들였고 경외함으로 법궤를 지켰습니다. 갑자기 그에게 주어진 일이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법궤를 지켰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오벰에돔과 그의 집이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삼하 6:11,12).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벰에돔을 비롯한 레위자손이 충성되게 성전문을 지키듯이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습니다(잠 16:32).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속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하며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더 큰 일을 맡기며 복을 주실 것입니다.

▶ 기도 /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소서.

『그 족속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대상 26:31,32)

구약에서 용사는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직책과 의무가 맡겨진 지도적 인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적 인물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용사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마음의 담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흔들림이 없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소유할 때 용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을 주관하는 일입니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케 하며 그를 경외케 하고 율법을 잘 지키도록 인도해야 합니다(신 17:19). 둘째로 주께서 맡긴 모든 일을 성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셋째 왕을 섬기는 일입니다. 섬김이란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맡긴 자의 의지만을 소중히 여겨 시중을 드는 것입니다. 용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날 용사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만왕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자기를 세우지 않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사모하며 성취하려는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2)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는 오직 충성과 행함만이 있음을 기억합니다(고전 4:2).

▶ 기도 / 오직 충성과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되게 하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여 맡겨주신 제2회 예수사랑 큰 잔치가 차고 넘치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대상 27:23)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는 군대 조직을 정비하는 것,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방행정 체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정비하면서 나타난 공통점은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람들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다윗의 시대에도 유효함을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약속대로 수효를 셀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당시에 인구가 많다는 것은 곧 국가의 국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왕들은 수시로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만큼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는 신정국가로서 왕이 임의로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벌을 당해야 했습니다(대상 21:1-17). 다만 다윗은 20세 이하의 인구를 계수하지 않았습다. 이는 그가 범죄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살게 하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양떼에 관심을 두며 목자장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아자비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대상 27:32)

다윗은 재물을 관리하는 데 현명했습니다. 그는 전문가들에게 재물 관리를 맡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개인의 편리나 이익 추구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사회의 공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윗이 받은 물질적 부요함은 오늘날 성도가 받은 영적 부요함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다윗이 자신의 재물을 잘 관리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부를 잘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영적 부의 원천인 주님의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시 119:4). 아울러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잠 15:16).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십니다(롬 11:12).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재물을 잘 관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부요함을 잘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영적 부요함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주인에게 빼앗길 뿐만 아니라 주인의 집에서 내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슬기로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관리하게 하소서. 부족함 없는 믿음의 덕과 섬김으로 앞장서는 모든 당회원들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대상 28:10)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행하라’는 말을 뼈 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힘써 행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 섬기기를 힘써 행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9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윗이 자기 일생 동안의 깨달음이며 마지막 유언입니다. 주님께서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 4:10)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 찾기를 힘써 행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찾기만 하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시 34:10).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롬 3:11). 이 시간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암 5:4)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시다. 셋째로, 하나님의 건축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간곡한 부탁이요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한 곳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벧전2:5)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행해야 합니다.

▶ 기도 /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소서.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18:20)

본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도록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령님을 통해서 받았던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 분담을 지시하여 성전의 예배와 제사에 사용할 기구를 만드는 법과 거기에 필요한 중량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결코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팔려 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행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창 39:2). 결국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왕 히스기야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복상을 찍으며 우상을 멀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행통했다(왕하 18:7)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될 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시다.

▶ 기도 /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성장하여 본을 보이게 하소서.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29:9)

솔로몬과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성전 건축에 대하여 지시했던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술선수범하여 먼저 최선을 다해 성전건축의 재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재산 가운데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바쳤습니다(3,4절).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인 후에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성전건축을 위하여 즐거이 예물을 바칠 자가 없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발동하여 강제로 제물을 모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을 찾은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다윗의 권면을 기꺼이 받아들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한층 배가될 것이지만 억지로 하게 되면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미련과 후회만 남게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양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성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므로 누구든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나의 힘이 자라는 데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이 마땅합니다.

▶ 기도 /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각 교구의 일꾼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소서.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 하나이다』(29:13)

온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다윗의 신앙은 정금과 같은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한 내용은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며,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유의 주재가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주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그토록 많은 양의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음에도 결코 자신이나 백성들이 착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14절)

순수한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이 부럽기만 합니다. 찬양한 뒤 백성들과 다윗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을 각각 1,000마리씩 번제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찬양한 후에 감사로만 그쳐서는 아니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는 즐거이 번제물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만 찬양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원들의 찬양으로 상한 영혼이 치유받으며, 병든 자가 나음을 입으며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부친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29:23)

솔로몬은 부친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장남이 아니므로 왕위에 오를 수가 없었지만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왕의 위엄도 주시고 그 전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으며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한 인물이 높아지는 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어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잘 따르게 해주십니다.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므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고 하였습니다(28절). 그는 병으로 죽지 않고 또 전쟁중에 죽거나 불의의 사고로 죽지 않고 나이 많아 수를 다 누리고 죽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젊은 날에 역경을 많이 겪었으나 노년에는 비교적 행복한 가운데 삶을 마쳤는데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역대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틀림없이 당신을 존경하고 따를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받는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통하여 온 성도가 은혜받게 하시고 감사 김장환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1:10)

본문에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고 그 결과 그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무엇을 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일과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기도의 우선 순위를 발견하며 삶의 우선 순위에도 적용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귀권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의복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집도 주십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존영과 장수의 축복을 주시며, 전(前)의 왕들이 누리지 못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삶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 기도 /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남녀전도회가 사랑의 편지 보내기와 예수 사랑 큰 잔치에 큰 몫을 담당할 수 있게 하소서.

『전에 솔로몬의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십오만 삼천 육백인이라』(2:17)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왕권을 확립하고 강력한 통치력으로 나라를 안정시킨 후 즉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미 선왕 다윗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시지 않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본문에는 솔로몬의 건축이 시작되었고 일꾼들을 모집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이방인을 모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인들로서 가나안 거민들입니다. 그들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협조하는 세력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모두 153,600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가운데 7만명은 담군 즉 운반인부가 되고, 8만명은 벌목하는 일을, 3,600명은 작업감독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건축에 이처럼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참여하게 된 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아무런 차별없이 똑같이 구원을 베풀어주실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둘이 하나가 되었으며 한 성령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기도 / 성전 건축에 참여하여 모두가 둘이 되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에 기름을 부으사 원주민선교가 활성화 되어 현지인 목회자와 선교사가 많이 세워지는 큰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3:17)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장소를 모리아산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한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모리아산에 짓게 된 것은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성전을 볼 때마다, 성전에 올 때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세웠습니다. 좌편에 하나, 우편에 하나를 세웠는데, 우편 것은 ‘야긴’이라고 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야긴’은 ‘그가 능력있게 하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기둥이 나타내는 것은 “전능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성전을 세우실 것을 보장하신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장하시니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함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확신하며 의지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 기도 /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경외하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의 사역을 축복하사 물질만능주의와 민족주의로 닫혀진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이와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4:18)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의 각각의 의미를 따지기보다는 성전에서 거행되는 제사에 이 기구들이 사용된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전 기물들의 중요성과 다양성을 보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각기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물들이 제사 의식에 거룩하게, 요긴하게 쓰이는 것처럼, 교회내의 모든 성도들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고 또 각자의 본분과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합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물들은 그 용도에 따라 재료를 달리하여 다양하게 쓰여진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귀히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릇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는 것은 그 그릇 자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분의 권함에 속한 것입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여부는 재료가 무엇인가 또는 모양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나 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는 그릇은 아무리 재료가 좋고 모양이 좋아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대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귀히 쓰임받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모든 봉사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진실되게 하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사역을 통해 지금도 살아 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다라』(5:14)

성전을 완성시키고 난 후에 진행된 봉헌 의식의 첫번째 행사는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다윗 당시 오벤에돔의 집으로부터 시온산의 성막으로 옮겨졌었습니다.

이 봉헌 의식은 너무나 장엄하고 의미 깊은 행사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봉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한 자들만이 이 의식에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의 찬양대에 속한 대원과 악기를 다루는 자들도 한 사람이 하듯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이 가득한 현상은 이스라엘 광야생활 중에서 성막을 완성시켰을 때에도 있었습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언약궤를 옮긴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온전한 회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름이 가득함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확정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기 백성과 만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로 성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영광은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 기도 /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매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성지연구소 건립을 위한 토지와 서류 구비 등 계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소서.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6:4)

솔로몬은 하나님의 망극한 은혜와 자비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최대의 소망은 하나님의 온전하고 영원한 임재입니다. 진정한 행복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대망하였던 것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임재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찬양은 단순히 성전을 완성한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성전에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확인한 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그 왕국의 왕위를 영원히 다윗 왕가에 세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은혜로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 다윗 왕가의 선택, 예루살렘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시려고 계획하시고, 계시하시고, 성취해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구원받은 은혜를 늘 감사,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결신하게 하시고 결신한 영혼들이 한 사람도 낙오없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6:15)

하나님께 감사 찬양함으로 솔로몬의 기도는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본문에서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통한 계속적인 은혜를 기원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며, 그 약속을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택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 왕가의 존속과 땅 위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1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은 하나님 뿐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실 만한 분은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며 통치자가 되십니다. 역사의 전후를 다 아셔서 약속을 하시며, 그 약속의 내용과 목표를 향하여 역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로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경 말씀의 약속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의지하고 체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 기도 /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게 하소서. 김창수 선교사(수리남)가 어려운 현지 상황(물가폭등, 날씨, 카톨릭의 압력)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며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아로 보옵시며 ……」(6:20)

하나님의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과 만나시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주와 역사의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주 안에 있는 사람이 만든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신비이며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간구는 몇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회개하면 구원해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또한 백성의 범죄로 기근의 징계를 내리실 때에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시며 비를 주실 것도 간구하였습니다. 온역이 백성의 죄악으로 임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실 것도 간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는 그에 따르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책임과 사명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하는 죄악의 본질은 그 사명과 책임을 잊고, 특권 의식이나 우월감에만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뵈고 감사할 뿐 아니라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로 징계가 있을 때는 즉시 회개하여 용서받고 회복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회개와 용서의 기쁨을 체험하며 살게 하소서. 유병세 평신도 선교사(일본)와 그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본인을 사랑하시며 크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어 주의 제사장으로 ……주의 성도로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6:41-42)

이슬비 전도훈련 때 강사 가운데 한 분이 ‘우 ……」 기도에 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우 ……」 기도란 기도하려고 앉드리자 마자, ‘하나님 우리 집, 우리 자식, 우리 남편, 우리, 우리, 우리 ……」 식으로 기도 내용을 전부 우리에게 관한 것만 늘어 놓다보니까 혹시 남이 들으면 창피하니까 기도머리에 ‘우’자만 크게 하고 나머지는 얼버무리는 기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려 무릎을 꿇을 때 마다 느끼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팔을 벌리면 걸릴 만한 가족이나 친지들을 제외하면 기도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가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제사장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어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목사님들만 제사장이라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목사님들은 여전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귀한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지도자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문제를 기도하기 이전에 성도들 즉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문제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순서로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날마다 주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게 되며 기도할 제목이 늘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 기도 / 이기적인 기도를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게 하소서. 이기성·박정아 평신도 선교사(호주)가 현지 적응을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솔로몬 왕의 드린 제물이 소가 이만 이천이요 양이 십 이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7:5)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제물을 태움으로 성전과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열납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은 어떻게 헌신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아낌없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헌신은 솔로몬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본문 안에 ‘모든’ 혹은 ‘온’ 백성이 참여하였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회중이 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둘째 시간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성전 봉헌식은 봉헌 기간 7일에 장막 절 8일 전부 보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초조해 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였습니다. 셋째 물질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오늘 요절에서처럼 솔로몬은 수많은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은 물량공세가 아니라 솔로몬과 그 백성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드렸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고후 8:12). 우리 속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각오만 있으면 우리가 드린 것으로 계산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아낌없이 드렸는지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 기도 /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김형선·한영자 평신도 선교사(뉴질랜드)의 현지 적응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 (7:14)』

본문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히 12:11-3)고 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좌절해 주저 앉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로 알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의와 평강의 길로 가도록 하라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의 자녀들이 불의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어떤 자세를 보입니까? 누구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나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애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기도한다면 그저 아직도 내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무조건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십니까, 아니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잘못된 부분,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을 깨닫게 해 주시라고 지혜를 구하십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약 5:13)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게 엎드려 악한 길이 무엇인지 발견해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대나무의 마디와 같습니다. 대나무는 마디를 통해 자라고 마디로 인해서 굳게 서는 힘을 얻듯이 성도의 고난은 성도를 성장하게 하고 성도의 삶을 바르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기도 / 고난 당하는 성도들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하소서. 김철영 평신도 선교사(일본)를 통해 일본 오사카에 복음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8:6)

솔로몬의 일생은 건축하는, 세우는 일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궁궐을 20년 걸쳐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면서부터 무엇을 건축할 것인지 마음에 계획을 가지고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생 성(城)과 군진지, 창고를 차례 차례 건축해나갔습니다. 그는 성군인 아버지 다윗에게서 부강한 나라를 이어 받았지만 아버지의 그늘 아래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고 힘이 들고 인력이 모자라지만 나라를 세우고 강대하게 만들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두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우는 사람입니다.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세웁니다. 둘째는 허무는 사람입니다. 앞서간 사람이 세워놓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까먹으면서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세우는 일을 감당한 왕들은 사울과 다윗, 솔로몬 등 초기 왕들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세우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을 이 시대는 필요로 하지만 이런 사람은 드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허무는 사람입니까?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마음에 무엇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은 다 편히 잠자는 시간에 홀로 깨어 있으면서 5년 후, 10년 후에 지을 건물, 성, 창고들을 설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것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기도 / 우리로 하여금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고은빈 평신도 선교사(케냐)의 현지 적응을 도우시며 협력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며 그 땅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알도록 인도하소서.

『솔로몬이 여호와와의 전의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8:16)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더욱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요인은 그의 이런 지도력이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성막을 대체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 시대에까지 전통 혹은 습관으로 진행되어 오던 성전 사역을 조직화시켰습니다. 다윗이 정해 놓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를 실제에 적용하고 각 직책에 적절한 인물들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모든 제도가 정비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4:12)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은 솔로몬에게만 맡겨진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모두 성전을 세우는 임무를 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든 다스리는 일이든 심방하는 일이든, 전화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성도인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또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역자, 성전을 세우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일을 최선을 다해 마쳤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완수하여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우리의 말 한 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가 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게 하소서. 돕고 있는 모든 개척교회와 미자립 교회의 외적, 내적 성장을 통하여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와서 목도한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나도다”(9:6)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자 스바 여왕이 선물을 가지고 만나러 왔습니다. 스바라는 나라는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 현재의 예멘 지역에 있던 사베안 왕국을 말합니다. 이 나라는 향료와 각종 보석, 황금을 무역하는 상업국이었다 합니다. 이 여왕은 예루살렘에 와서 왕궁과 성전, 신하들과 하인들의 복장을 보고 기절할 만큼 놀라서 탄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광은 소문보다 훨씬 놀랍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소문은 대부분 과장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일을 자랑하는 사람도 침소봉대해서 말하고 또 그 말을 전하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덧붙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소문으로 들을 때는 대단한 줄로 알고 기대를 가지고 보러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스바의 여왕도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반신반의하면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와보고는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보고 고백한 말은 대단한 칭찬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봉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잘한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의 현상을 보고서 ‘야! 정말 듣던 대로다’ 아니면 ‘소문보다 낫다’고 할지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소문이 잘나야 합니다. 그러나 소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알맹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총교회는 소문이 좋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뿐만 아니라 좋은 소문에 그치지 않고 소문듣고 배우러 왔다가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국 교회 앞에 본이 되는 중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부와 예배다부원들에게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크니라』(9:22)

성경은 솔로몬을 당시의 열왕 가운데 재산과 지혜에 있어서 가장 큰 자라고 밝혀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기뻐하시고 부와 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부와 귀를 누렸던 화려한 생활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그의 거대한 부는 아라비아 왕들과 방백들이 가져온 금과 은, 그리고 상인들과 객상들이 가져온 세입금은 금 666 달란트였습니다. 이것은 약 22.6톤으로 현대의 쇠가로는 환산하기조차 어려운 놀라운 액수입니다. 둘째, 탁월한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것입니다. 천하 열국의 왕들이 모락가이며 뛰어난 지혜자와 모사자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사모하던 세상의 어떠한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였습니다. 셋째, 40년 동안 계속된 그의 이스라엘 통치는 건축물, 재판과 잠언, 백성들의 모든 부분에 그의 지혜에 관한 명성이 퍼져 이 기간은 백성들에게 참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 그리고 이로 인한 나라의 번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삼하 7:10-16)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성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지혜를 간구하여 솔로몬과 같이 부와 명예를 누리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 기도 / 새 언약의 백성되게 해주심을 항상 감사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간구하여 부와 명예를 누리게 하소서.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10:14)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번영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함으로 인해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제기한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세금과 강제 노역에 관한 문제였으나 사실은 이방의 속국을 노예로 삼아 노역을 시켰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군사와 감독들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백성들은 왕족이 아닌 여로보암과 합세해 분열을 자초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러한 백성들의 불평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의대로 감정적인 충동에 의해 솔로몬의 선정에 경험이 많은 노인들의 유화정책을 추진하지는 충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소년들의 강경노선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을 강구함으로 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오판의 교훈을 통해 이 민족의 비극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르호보암이나 우리 민족의 과거 지도자들의 역사를 보면 한 나라의 통치하는 자들이 저지른 민의에 대한 오판은 분열과 엄청난 파국과 몰락을 가져다주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직도 남북의 분단의 아픔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형제간의 서로 반목 질시하고 분열하는 비극을 중단하고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하나되어지는 역사, 변영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불평불만하는 백성이 아니라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순종하고 열심히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 기도 / 교회와 국가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며 충성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시와 미움에서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며 다시 한번 하나되어 변영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와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11:4)

왕으로서의 지지를 받기 위해 세겔으로 갔던 일이 실패로 끝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잃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치욕의 아픔으로 가득찬 한을 풀려고 전쟁을 계획하였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북조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려는 르호보암의 계획은 백성을 찾고 나라를 찾으려는 선정과 사랑이 아닌 권위와 힘으로 파괴, 전쟁, 피 흘리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계획을 아시고 스마야 선지자를 세워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남북조 분립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선대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북조 이스라엘 10지파를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동족간의 전쟁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된 초기에는 패기와 자만감에 가득차서 자신의 뜻대로만 행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민족 분단의 비극을 초래하였지만 늦게나마 뉘우치고 선지자 스마야의 권면을 받아들여 르호보암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과감히 군대를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국경 변방에 15개 성읍을 건축하여 요새화하고 국방을 견고히 하여 침략을 대비하며, 각기 장관들을 세워 식량과 무기를 갖추며 민심을 완전히 평정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백성들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자만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하자 솔로몬 시대의 모든 번영을 상실하고 분열의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백성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에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자 동족간의 전쟁을 피하고 국방이 견고해지고 민심을 평정하고 축복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의 잘못으로 남북이 분단된 부끄러운 민족이지만, 지금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여 하나로 통일되며 번영하는 축복의 민족이 되어야겠습니다.

▶ 기도 / 분열된 우리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되어 축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복음을 듣지 못한 족속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삼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삼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음이다』(11:17)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북이스라엘의 생활에서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양심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안정된 재산과 생계도 다 포기하고 유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자유로이 감당하고자 하는 경건한 백성들이, 자기 조상의 유업과 재산을 버리고 신앙 우선주의로 유다를 택하였습니다. 또한 르호보암과 그의 백성들은 3년 동안 한 마음으로 언약과 법도를 지키는 일과 여호와를 온전히 쫓으며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셔서 유다를 왕성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르호보암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았고 많은 자녀들을 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길 때에, 여로보암의 박해를 피해 넘어온 제사장, 레위인, 수많은 백성들이 신앙의 자유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헌신하며 봉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넘치는 보상으로 강성함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민족도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린 평양을 축복하셨지만 김일성의 핍박으로 북쪽의 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남하여 남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함께 헌신하며 봉사한 결과로 놀라운 변영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민족이 변영과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참된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퇴색되어진 신앙에서 처음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그 풍랑으로 인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소서.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12:8)

르호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3년만에 세력이 견고한 나라를 이룩하는 큰 축복을 받았으나 곧 교만하여져서 여호와와 율법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축복의 상징이었던 견고한 요새들과 영토들이 다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축복과 징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와의 언약과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는 강성과 번영의 축복을, 율법을 버리고 타락할 때에는 엄청난 징계로 쇠퇴를, 그러나 다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축복 가운데서 바로 섰을 때에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때에 따라 단순히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타락에 대한 징계는 소극적으로는 죄에서 회개시키고 겸손하게 하는 데 있으며, 적극적으로는 여호와와의 의로우심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유다처럼 다급할 때에만 열심을 내다가 평상시에는 미지근해지고 평안할 때에는 버리고 떠나는 성도가 아니라, 항상 죄에서 떠나 하나님만 섬기므로 계속하여 축복받고 변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기도 / 축복과 평안할 때에 교만하고 타락하여 주를 버리지 않게 하소서. 가정의 본질이 파괴되고 조성된 부모와 자식간에 불신의 관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1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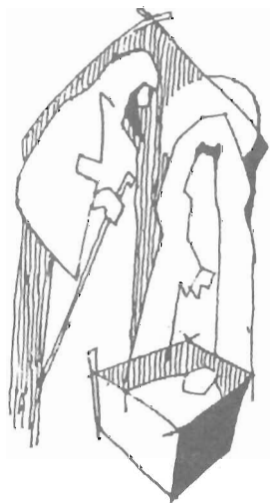
이스라엘 왕국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하여 분단된 이후, 남북 왕국은 첨예한 적대 관계와 대결 국면으로 치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비야 시대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양국 사이에 전쟁이 촉발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믿음과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한지 살펴 보면서 남북 왕국의 차이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의 소금언약 즉 변치 않는 언약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유다의 아비야와 그 정통성을 버리고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과는 정통성을 지킨 것과 버린 것의 차이입니다. 둘째, 남왕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종교적 건전성을 지켰고, 북왕국은 타락의 길을 간 차이점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배반의 차이입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결과는 군사적으로 두 배의 우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한 아비야에게 대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비야는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었는데 이 믿음의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여로보암의 용병 80만에 포위된 아비야의 40만 군대는 싸우기 전에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짐으로 하나님이 친히 치심으로 50만명이나 도륙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둘째, 승리의 여세를 몰아 대대적으로 북왕국의 성읍들을 빼앗아 국력이 더욱 강성해졌습니다. 셋째, 아비야는 여로보암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와 강성을 얻고 국가적인 복락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복락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섭리 속에서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순결을 회복한 아비야는 승리와 강성과 복락을 누렸습니다. 이같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락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기도 / 정통적인 신앙과 순결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매일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11월이 되게 하소서.

예수 사랑 큰 잔치 특별 공과



예수님의 전도 방법

· 성경 : 요 4:1-26

· 찬송 : 257장

· 요절 : 요 4:11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예수님은 제지들과 더불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여행하시던 중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셨습니다(4:4). 그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예수님이 굳이 가신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일까요? 결론은 전도를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전도의 원리 4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상대방의 호의를 구하셨습니다

7절에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접촉점(contact point)을 찾으신 것입니다. 전도의 첫걸음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문을 여는 것이고, 상대방의 호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절과 호의는 비록 상대방이 까다롭고 배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화의 문을 열리게 할 수 있습니다. 피차 공동관심사를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사랑의 편지 보내기 운동은 상대의 마음문을 여는 이슬비 작전인 것입니다.

2. 상대방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자 여인이 논쟁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려 했습니다(요 4:9 참조). 민족적인 편견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를 미

위해야 할 당신이 어찌해서 나와 대화를 하느냐는 도전적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논쟁거리에 휘말리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약 1:19)

우리가 억지로 상대방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싸우되 투쟁적이 되서는 안됩니다.

3. 예수님께서서는 여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요 4:10)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호기심을 불러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대상자에게 영적인 일과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그 일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게 하고 기어코 교회에 나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일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전도의 시발점이 됩니다.

• 기 도

1. 전도대상자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가지고 대하게 하시고, 논쟁하지 않게 하옵소서.
 2.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살펴서 나의 열과 힘을 다해 돕게 하소서.
 3.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

빌립의 전도 방법

· 성경 : 행 8:26-40

· 찬송 : 258장

· 요절 : 행 8:31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
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
니라”

우리는 전도를 하려고 해도 실패할까봐서 또는 창피를 당할까봐 미리 겁을 먹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빌립은 어떻게 해서 성공적인 전도를 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1. 먼저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9, 30절을 보면 병거를 보고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성령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은 인간적인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열심의 근원이 되는 성령충만 받기를 애써야 합니다(기도, 말씀, 봉사 등). 그의 마음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흥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흥분과 감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열심이 없이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일이야 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열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너는 미쳤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음을 봅니다(행 26:24).

나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성령충만한 믿음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2. 사람과의 원만한 교제(만남)를 가져야 합니다

빌립은 상대방과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의 허락도 없이 그가 읽는 성경에 대하여 가르쳐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를 꺼려한다면 아무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바로 교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우리의 과거가 실패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교제의 불성실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교제설정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상화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원만히 가져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복음을 배척하는 것보다는 교제가 잘못 되어 있는 신자들을 미워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 대상자가 결단하여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빌립이 성경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함으로써 에디오피아 내시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내시는 세례 받기를 자청하여 세례 받고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시가 세례 받기를 자청하게 되었을까요? 그 일이 저절로 되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빌립의 예수 복음 전도와 결단의 촉구가 병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10월 17일에 있을 예수 사랑 큰 잔치 에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는 천국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 기 도

1. 저희들에게 복음의 열정과 열심을 주시옵소서.
2. 사람들과의 원만한 교제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실제

· 찬송 : 260장

1. 전도 대상자의 선정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를 기도 중에 선정하여야 합니다. 노방전도나 축호전도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랑의 편지 보내기를 병행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전도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은 전도대상자를 우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나선 초보자가 처음부터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 거부를 당하거나 논쟁을 하게 되면 크게 실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도대상자 선택 범위

가족, 친척, 친한 친구, 이웃, 사업 동료, 기타 아는 사람들
영혼 구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고넬료 가정은 복음을 받을 때에 고넬료뿐 아니라 온 집안과 친척이 함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은 가장 시급한 전도의 대상입니다. 친족의 전도가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전도는 내가 하지만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과 접촉할 때

- (1)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외모를 갖추도록 하시오.
- (2) 친절하고 유쾌하시오.
- (3) 대담하고 침착하시오.

12월 1주

- (4) 사랑의 편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시오.
- (5) 사랑의 편지는 자신의 이름으로 전하시오.
- (6) 인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내도록 하시오.

3. 가정 방문시 유의 사항

- (1) 친절해야 하고 그 방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 (2) 상대방 옆에 앉습니다.
- (3) 라디오나 TV를 끄게 합니다.
- (4) 무엇인가 칭찬할 것을 찾습니다.
- (5) 5분 정도 일반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 (6) 교회 출석이나 교회 회원이 되는 문제를 처음부터 말하지 마십시오.
- (7) 자연스럽게 영적인 대화로 전환시킵니다.

4. 개인전도의 요령

- (1) 친절한 태도로 접촉을 시작해야 합니다.
- (2) 전도자가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십시오.
- (3)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물어보십시오.
- (4) '복음의 핵심'을 말하십시오.
- (5) 기회를 잘 포착하십시오.
- (6) 결신을 촉구하십시오.
- (7) 예수님의 심정을 품으시오.

제 1 과

구원의 기쁨

· 본문 : 막 10:17-27 · 찬송 : 197장, 404장

· 요절 : 막 10:27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큰 필수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17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젊은이는 모든 외형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문제의식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1. 젊은이의 실수(구원에 대한 잘못된 개념)

(1) 선행(착한 일)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인줄 알았습니다(17절)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이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많이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평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부패된 인간의 속에서는 절대적인 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막 7:20).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롬 3:10,20). 율법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은 언제나 부족합니다(21절).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못시키지만 구원의 필요성을 가르쳐주는 역할은 합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갈 3:24).

2. 구원의 길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엡 2:8). 값없이 구원받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비싼 것은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값을 인간의 힘으로 지불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이요 십자가의 공로밖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불하려고 하는 자체가 은혜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요 감사일 뿐입니다.

·적 용

- (1) 나는 진정 죄인됨을 인정하는가?
- (2) 나는 십자가의 구원을 진정 인정하고 감사하는가?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진정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사하며 충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 2과

인류 최대의 선물

- 본문 : 딤후 3:15-17 · 찬송 : 235장, 241장
- 요절 : 딤후 3:15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반 책들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류 최대의 선물이요(아브라함 링컨), 영원한 책이요(러스킨), 인류가 경험해온 가장 유익된 책입니다(임마누엘 칸트).

1.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딤후 3:16, 벰후 1:21)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주된 이유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감동'이란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불어 넣은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또한 '감동'이란 '짐을 지운 것'이란 뜻으로, 즉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위해 특별한 경륜에서 인류에게 주신 계시(비밀을 여는 것)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2.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첫째로 성경은 주제와 내용이 서로 충돌됨이 없이 완전하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66권의 책은 40여명의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의 책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또한 빠질 수 없는 증거는 성령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먼저 믿은 많은 성도들이 진리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적 용

1.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 받아들이고 있는가?
2. 나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항상 복되고 성공스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 1) 찬 송 다 같 이
- 2) 성경 봉독 사 회 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다 같 이
- 5) 주 기 도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
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